

2020 SEPTEMBER VOL.391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다.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의 힘뿐.  
안창호

## 닝쿨터널



겨레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  
겨레의 큰마당 한편에 ningkul터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치형 천정에는 푸른 ningkul식물이 가득하고  
그 아래에서는 야외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0 September Vol. 391

# 09



## Coverstory

지난 100년을 아로새긴  
시절의 꽃이 피어나고  
결실의 열매가 우거지면,  
긴 터널을 지나온 선조들의  
송고한 헌신을 마주하고  
역사의 뒤안길을 밟아봅니다.

일러스트: 오현균 작가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i815.or.kr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천안라00001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이준식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이봉근, 고명재, 구병준, 권동운, 염진일, 오세호, 이선화, 이정희, 정경민, 주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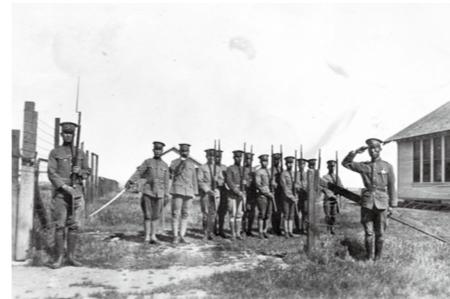
## 시간의 증언

- 04 오늘을 여는 풍경**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진
- 06 자료로 보는 역사 이야기**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즈음하여
- 08 그때 그 역사**  
일제 침략자들의  
음모
- 12 밑줄을 긋다**  
일제의 조작극  
105인 사건



## 역사의 실마리

- 1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의미를 되새기다
- 16 아름다운 인연**  
독립전쟁 현장에서 영원한 동지가 된  
김학규와 오광심
- 20 이달의 독립운동가**  
중국을 무대로  
독립전쟁에 일생을 바친  
광복군 지도자 채원개
- 24 한국인의 터전: 미주 편**  
윌로스 한인비행학교의  
설립과 활동(1)
- 26 역사 바로알기**  
100년의 관행, 불필요한 답습  
인감
- 28 절체절명의 한국사**  
14세기 후반 위기의 시대



## 세상의 발견

- 31 기념관 소풍**  
우리 겨레의 외침
- 32 이 땅의 숨결**  
다시 쓰는 단양팔경  
단양팔경 외전
- 36 영화관에서 만난 역사**  
제국주의 폭력에 희생된  
박열
- 38 타인의 취미**  
나만의 반려 식물  
맞이하기
- 40 일상 돋보기**  
우산꽃이 빈자리를 채우며 /  
무뚝뚝했던 동료와의 소통 성공
- 44 기념관 소식**



#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진

일제의 잔혹한 음모로 인해  
옥중에 갇힌 105명의 독립지사들이  
뼈와 살을 짓이기는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수 날을 지새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에는 되뇌었습니다.  
나라 잃은 설움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준비한 독립전쟁이 무산되고  
신민회가 해체되었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포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죄.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일제의 기만은  
그 무엇도 분열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걸음 할 곳이 선명해졌고  
뒤돌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날을 향해, 독립의 길로.





# 일제 침략자들의

## 음모

### 105인 사건

대중선동의 귀재인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파울 괴벨스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어록을 남겼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자동적으로 세 부류로 나뉘는데, 한쪽은 저항 세력(resistance), 다른 한쪽은 협력 세력(collaborator)이며, 그 사이에 머뭇거리는 대중(masses)이 있다”고 하였다. 괴벨스는 침략 대상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부가 약탈되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려면 대중이 저항 세력을 돕지 않고 협력 세력에 가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일제, 한민족 말살정책을 펼치다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인 일제강점기에도 괴벨스의 주장과 일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안중근이나 이봉창 등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저항 세력으로,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오적과 노덕술 등의 수많은 협력 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중들은 온갖 착취와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었다.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비참한 우리 역사의 치욕스러운 흠탕물은 일제 침략자들보다 그들에게 협력한 친일파의 매국행위였다. 같은 민족이 서로 끌어안고 보듬으며 일제를 물리치기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친일파는 오직 자신들의 출세와 기득권을 위해 조그마한 개인적인 양심마저 내팽개쳤다. 저들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친일파들과 작당하여 경제적 침략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불구가 되도록 더러운 계락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식량과 토지의 강제적 약탈을 시작으로,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고, 여성들을 전쟁에 동원하여 군인들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심지어 사람을 의학 실험의 도구로 삼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일삼았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말살정책을 병행하였다. 각종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우리 민족을 고문하고 살인하는 행위는 다반사였다.

### 지록위마로서 공포 분위기를 조작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려 보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곧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제 침략 세력과 친일파는 진실이 아닌 사건을 조작하여 사실로 인정하도록 한민족을 괴롭혔다.

강제병합 직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은 ‘105인 사건(일명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이다. 일제는 처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며 미개한 조



105인 사건으로 압송되는 신민회원들(1911. 9.)



법정으로 끌려가는 신민회원

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흑색선전을 반복적으로 강변하였다. 식민지 노예교육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이를 무의식중에 받아들여도 록 대대적인 선전과 조작에 혈안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대중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폭압적인 공포 분위기 만연으로 한 반도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 일제는 신민회 세력에 주시하다

을사늑약 이후 서북지역은 신민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교육 계몽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일제는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1910년 12월에는 군자금을 모금하다 잡힌 안명근의 사건을 확대·날조하는 등 서북지역 배일기독교인과 신민회 회원을 체포한 안악사건을 조작하였다. 대한제국의 최대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 조직을 탐지한 후 탄압하기 위한 105인 사건이다.

신민회는 1907년 초에 안창호·양기탁·이승훈 등이 조직한 항일단체였다. 목적은 독립사상의 고취, 국민 역량의 배양, 청소년 교육, 민족 자본 육성 등을 통한 민족 실력 양성이었다. 일제는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평양·선천·정주 등에서 기독교학교 교사와 학생 등이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날조하였다.

일제는 1910년 8월 이래 신민회 본부의 지휘로 다섯 차

례에 걸쳐 ‘총독 암살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강변하였다. 평양·선천·정주 등 9개 도시에서 사건 날조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구입하는 등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압록강철교 개통식 참석을 위한 데라우치 총독의 서북지방 방문을 계기로 대원들이 준비한 단총으로 총독 암살을 도모하였다고 암살미수죄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 조작·날조로 105인 사건을 확대하다

일제는 1911년 9월부터 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윤치호·양기탁·임치정·이승훈·유동열·안태국 등 전국적으로 600여 명을 검거하였다. 각본에 맞추어 피의자들에게 진술을 강요하면서 잔인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도 받아내었다. 이를 105인 사건이라 칭칭함은 이 사건에 강제로 연루되었던 피의자 가운데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5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조선음모사건(朝鮮陰謀事件)’·‘선천음모사건(宣川陰謀事件)’·‘신민회사건’이라고 불렀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Conspiracy Case’라 하였다.

피의자 체포는 1911년 9월 3일부터였다. 평북 선천 신성중학교에서는 아침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교실로 들어가려는 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교사 7명과 학생 20명 등을 포획하고 수감에 채워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났다. 3개월이 지나 경무총감부 제1헌병대 유치장에서 본격적인 심문과



양기탁

고문이 시작되었다. 악의에 찬 위협은 물론 곤봉으로 온 몸을 무수히 때렸다. 고문을 받은 선우훈(鮮于燾)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심문을 맡은 일경의 첫 마디가 ‘네놈은 혈기 있고 강력한 놈으로서 신민회원이다. 기독교 신자로 우리를 가리켜 왜놈, 왜놈 하면서 우리말을 무엇이든지 듣지 않고 서양 놈의 말이면 죽을 데라도 잘 가는 놈인 줄 안다. 너는 지난 석 달 동안 유치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통감부에서 어떠한 악형을 할지라도 불복하자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안다’고 하면서 주먹과 곤봉으로 마구 때렸다.”

고문은 갈수록 더욱 악독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고문의 종류는 70여 가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잔인하였다.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수 십 일을 굶긴 후 산해진미를 바라보게 하여 배고픈 고통을 참지 못해 옷 속의 솜을 뜯어먹거나 깔고 자던 썩은 짚을 씹어 삼키기도 했다는 고백이다. 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약물을 코 안에 넣어 정신을 잃게 하였고,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불로 단근질하기 등이었다.

일제는 고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다. 극소수를 제외한 피의자들은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을 받은 사람은 피의자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다. 가장을 잃은 가정은 생활고로 집을 팔거나 가족들이 흩어지는 고통을 당하였다. 피의자 중 김근형(金根滢)·정희순(鄭希淳)은 심문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암살 미수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신민회를 무장 암살 단체로 몰아 일망타진하기 위한 일본이 꾸민 조작극이었다. 일제는 겉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그것은 날조된 연극과 같은 재판이었다.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충분한 조사도 없이 구성된 의구심 짙은 사건에 불과했다. 판사들의 판결 또한 저들이 의도한 대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증거는 관련된 조선인들의 자백이었다.

1912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 선 123명의 순수한 한국인들의 참혹함은 누굴 원망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규명하

는 재판의 시작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기존의 증언은 진실이 아니오,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증거요.”

법정에 선 조선인들은 강요된 허위 자백임을 주장하며 반인륜적인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으나 123명 중 105명은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양기탁·임치정·주진수·안태국 등 16명의 보안법 위반 판결문’ 내용의 일부이다.

“서간도에 단체적 이주를 기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히 자력(資力) 있는 다수 인민을 동지(서간도)에 이주시켜 토지를 구매하고 촌락을 만들어 신영토로 삼고, 학교 및 교회를 배설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문무(文武) 쌍전(雙全) 교육을 실시하여 기회를 타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舊)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가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왜 일제는 허구적인 사건을 조작했을까

일제는 강점 직후 자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개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자행하였고 국권 강탈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이에 일제는 예상되는 한인들의 항일민족운동 사전 차단을 당면한 최대 과제로서 인식하였다. 무장운동에 대한 토벌작전과 근대 법령 정비를 빙자한 애국계몽운동 탄압 등은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 한국 강점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된 의열투쟁 등에 조직적인 비밀결사가 배후에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105인 사건을 조작한 이면에는 반일의식이 강한 서북지방 기독교 교세 확장 방지와 그들의 배후 세력인 미국 선교사들 축출에 있었다. 이는 미일 양국 사이에 심각한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수 외국인 선교사를 연루시킴으로써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1910년 전후로 급속히

냉각되었던 양국의 관계 변화는 당시 국제질서 재편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105인 사건 이후 신민회 조직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코 와해되지 않았다. 회원들은 오히려 항일의식을 계승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신민회 회원들이 3·1운동의 민족대표로서 참여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들 선각자가 보여준 백절불굴의 나라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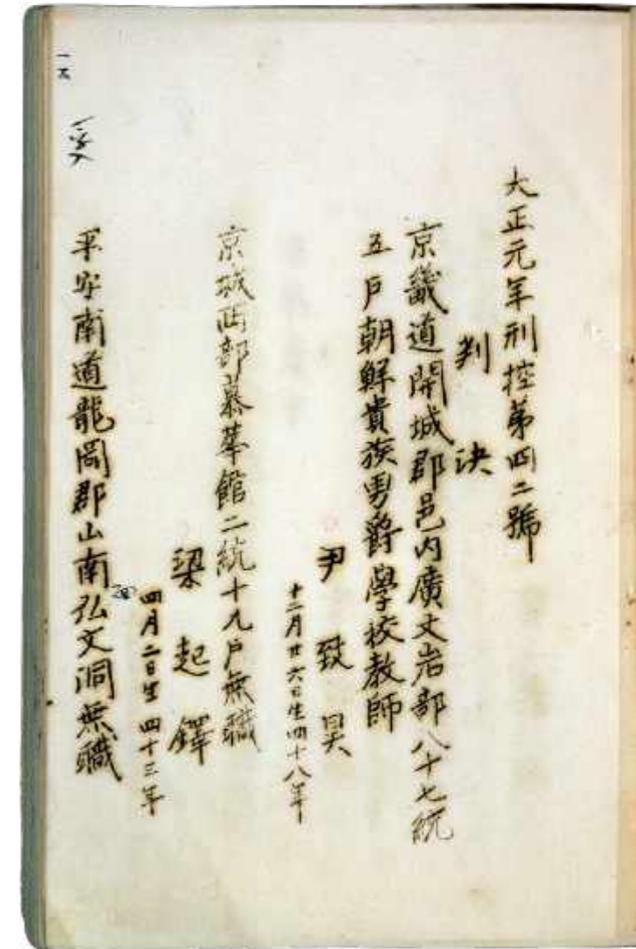


임치정



선우훈

신민회 관계 인사 판결문 (1911. 9.)



# 일제의 조작극

# 105인 사건

## 독립운동가 600여 명 체포

### 1911년 서울

조선총독부 총독 암살미수사건 조작



### 신민회원 600여 명 검거



### 제1심에서 105명 유죄 판결



### 70여 가지의 고문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고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불로 단근질 등



### 제2심에서 99명 무죄 선고

나머지 6명 징역 5~6년 선고



### 징역 선고를 받았던 6명

훗날 특별 사면되어 석방

##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다

- 1907. 안창호·양기탁·신채호 등이 조직한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 평양과 정주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 1910. 08.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강점한 뒤에도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 독립운동 꾸준히 확산.
- 1910. 10.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다케 부임. 민족의식이 높았던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
- 1911. 01. 독립군 기지 창건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양기탁·임치정·주진수 등 신민회 간부 16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 1911. 09. 조선총독부는 위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몰아감. 그리하여 유동열·윤치호·이승훈 등 6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 체포. 혹독한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
- 1912. 06. ~ 1923. 10. 6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기소된 123명 중 18명은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나머지 105명은 징역 5~10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 105인 사건이 미친 영향

### 신민회 해체



1907년 설립되어 활동하던 대한제국기 최대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는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체되고 말았다.

### 일부 지식인들의 친일 전향



한때 촉망받던 지식인이자 신민회 회장이었던 윤치호 등은 친일 전향을 조건으로 1915년 특사로 석방된 후 친일파로 변절했다.

### 국외에서 활발한 항일독립운동 전개



105인 사건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독립정신은 국외에서 계승되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였고 국외에서 항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민회 인사들은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다.

#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의미를 되새기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성립된 지 20여 년 만이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만큼 김구 주석은 “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창설 취지를 천명하였다.

##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제정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인 영국군과 합동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고, 미군과 합작해 국내진공작전을 위한 OSS 특수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광복 이후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에서 밀려나 있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있다고 명시했지만 국군만은 그렇지 못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군의 날’에 대한 논쟁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날 제정은 해방 후 창군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육·해·공 3군의 국군의 날이 각기 존재했다. 육군은 조선 경비대가 창설된 1946년 1월 15일, 공군은 육군에서 독립한 1949년 10월 1일, 해군은 조선해안경비대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창설된 1945년 11월 11일에 각기 기념식을 치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 8월, 육군은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일로 바꿨다. 1년 뒤인 1956년 9월, 정부는 각 군의 창설 기념일을 통합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고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3군 단일화, 국군의 사기, 국민의 국방 사상 함양, 재정 절약 등의 차원이자 했지만 국가의 방침인 반공주의의 일환이었다.

## 정권별 국군의 날에 대한 논쟁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열린 국방군사연구소 국방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국군의 정통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항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광복 후 미군정 시기에 한국군의 창설과 정통성 계승에 있어 우여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군의 창군 인맥과 이념을 통해 볼 때 한국군은 광복군 이념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정통성 또한 계승된 것이 너무 당연하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의 주장은 학술대회였던 만큼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군의 정통성 문제가 국군의 날 변경 논쟁으로 귀결되었다. 2000년 9월 한국광복군 창군 60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김삼용 대한매일주필과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 등은 주제 발표를 통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국군의 날은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훈감 전 육군, 표명렬 군사평론가는 어느 일간지에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정식 군대다. 때문에 국군의 날은 국군의 정신적 전통과 이미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이를 정상화하여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김재홍 경기대 교수·오마이뉴스 논설주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점만 보아도 최소한 임정의 광복군이 오늘 우리 ‘국군의 아버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문제는 국회로까지 확산하였다. 2000년 10월 제16대 국회 국감장에서 박상규 의원(민주당)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한 것은 군의 이념적 연원, 정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창설 일을 포함해 항일 의병, 독립군, 광복군 등의 창설과 관계

있는 날을 국군의 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그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의원 21명이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하였지만 반대 목소리에 흐지부지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지속되었다. 2004년 국군의 날 변경을 주장하였던 예비역 장성이 재향군인회 등 여러 군 관련 단체로부터 제명될 뻔하기도 하였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해 8월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제2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총회에서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일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였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다만 그해 계통대에서 열린 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광복군과 국방경비대 등 국군의 모태 부대들이 옛 복장으로 행진하여 국군의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노무현 정권 내내 반복되었다. 2005년에 평화재향군인회가 국군의 날 변경에 발 벗고 나서자 재향군인회는 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2006년에는 시민단체도 국군의 날 변경에 한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이 또한 통과되지 못하였다. 반대 측 인사들은 10월 1일이 민족상잔과 치욕의 날이라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족상잔의 주범을 격퇴한 것이 왜 ‘치욕’인지 묻는가 하면, 이를 바꾸려 하는 것은 ‘북쪽의 심기’를 의식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 관련 인사들은 10월 1일이 50년 이상 계속되어온 국군 기념일이라며 반발하였다.

##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한 정통성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 차원에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일로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1998년 건군 50주년 기념우표에 국군의 모습 대신 광복군과 백두산 천지를 그려 넣어 국군의 뿌리를 조명하고 국토수호라는 국군의 사명을 부각하였지만, 2008년 건군 60주년에는 육·해·공군

의 모습만이 기념우표에 담겼다. 그런가 하면 그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예전과 달리 행진 대열에서 광복군이 빠졌다. 보수 측 인사들은 국군의 날 변경 주장에 좌파 성향을 덧씌워 이념 공세로 변질시켰다. 그래서였는지 2010년 9월 한국광복군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국군의 날 개정을 촉구하는 정도로 그쳤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목소리는 다시 커졌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 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변경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에 10월 1일은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그해 10월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군의 날을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야당 인사들이 독립 세력과 건국 세력을 편 가르기하고 소모적 갈등을 조장한다며 반발하면서 유야무야 되었다.

다른 나라의 국군의 날은 독립된 날을 기념하거나 외세에 크게 항거한 날, 국가 정치 운영 형태가 바뀌는 날, 또는 정규군 형태의 국군이 만들어진 날 등을 기념일로 삼는다. 유럽 국가나 여느 선진국의 경우는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혹은 국가 자체의 역사적인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폴란드는 1920년 바르샤바 전투에서 이긴 8월 15일을, 베트남은 까오방성(Cao Bằng)의 숲에서 일본군에 맞서 선전 해방군이 조직된 날인 1944년 12월 22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대외 투쟁과 독립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동떨어져 있다.

올해 2020년 8월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여당 국회의원이 또다시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벌써 다섯 번째이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있다고 천명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역시 한국광복군에 있다. 이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는 것이며 통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이다. 더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적 소송돌이에 한국광복군의 정통성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 독립전쟁 현장에서 영원한 동지가 된

## 김학규와 오광심

중국으로 망명해 교사 생활을 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심어주던 김학규는 교사 생활을 접고 무장투쟁에 뛰어들면서 오광심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이후 김학규와 오광심은 광복이 되는 순간까지 독립투쟁 최일선에서 함께 활약한다. 광복 이후에도 조국과 동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 부부에게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오광심과 김학규



### 군사학을 배우며 독립군으로 성장하다

김학규는 1900년 11월 평남 평원군 서해면에서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등을 직접 겪으면서 강한 항일의식을 가졌다. 일제의 강제 병합 즈음 중국 통화현에 정착하여 독립군 양성 요람지인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학을 배웠다. 이곳에서 배운 군사학은 후일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든든한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로군정서 한국의용대 소대장으로 교민 보호에 진력하였다. 이 단체는 류허현 고산사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20년 6월 이후에는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과 교전하는 한편 친일파 등을 처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독립전쟁의 실전경험을 쌓았다.

일제는 독립군을 후원하는 한인 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을 서슴지 않는 이른바 '경신대토벌' 작전을 감행하였다. 일본군의 포위에서 탈출한 김학규는 평토편의 영국인이 운영하는 문회고급중학에 입학·졸업하였다. 재학 시절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중국어는 후일 항일투쟁을 전개할 때 중국군의 지도자들을 만나 협상하고 신임을 얻는 밑거름이 되었다.

### 민족교육과 독립전쟁을 병행하다

김학규는 1927년부터 류허현 동명학교 교사로서 한국인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일깨웠다. 교육 활동은 항일투쟁 전선에서 이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독립운동 노선이었다. 병식체조 등 군사교육으로 장차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 문무쌍전에 입각한 민족교육은 항일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1929년부터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에 가담하여 독립전쟁 현장에 다시 나섰다. 조선혁명군 참모장으로서는 흥경현전투와 쾌대무전투 등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었다. 괴뢰정부 만주국 설립 즈음에 김학규는 중국의용군 사령관 당취오와 면담하여 한중연합에 의한 공동 항일무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 시절의 김학규

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중연합세력은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하여 신빈현과 영릉가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반면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조선혁명군도 큰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에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심한다.

### 한국광복군 지대장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다

김학규는 1935년 7월 민족혁명당 결성식에 조선혁명당 대표로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과 조선혁명당 만주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에는 중국 육군중앙군관학교 특별반에서 군사교리를 연구하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분열된 독립운동 단체의 대단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결성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김학규는 임시정부의 군무부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독립전쟁에 대한 계획안, 군사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군사상 필요한 서적 연구와 편찬 등에 매달렸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이 충칭에서 창설되었다. 총사령부 참모장 대리 임명된 후 시안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적후방 공작을 추진하였다. 제3지대장에 임명되어 초모공작으로 많은 광복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부를 안후이성 푸양에 설치하여 중국군과 연락·협조로 선전공작과 정보공작 등을 실시하여 적군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한국광복군은 특히 태평양에서 일본과 교전하며 북진하던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국도 항일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운동 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1945년 1월부터 광복군과 미국전략첩보국의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지대장 이범석은 미국과 협력 작전을 교섭하였다. 협력 작전은 주로 한국 영토에 대한 첩보와 침투, 일본 본토에 대한 침투 등이었다.

한편 미군은 일본에서 탈출한 학병의 능력에 주목하였다. 김학규는 쿤밍으로 가서 미 제14항공대 사령관에게 한미공동작전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여 세부 계획과 구체적인 실시 방안까지 합의를 보았다. 이리하여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보급품 등을 지급받아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주된 훈련은 무전훈련이었다. 독도법·암호문 해독법·폭발물 취급기술·요인납치·야간속격 등도 병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항복으로 결국 국내로 진격해보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 여성독립군으로 다시 태어나다

오광심은 평안북도 선천군 신부면에서 1910년 3월 15일에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남만주로 이주하여 정의부에서 설립한 화흥중학 부설 사범과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한족회에서 설립한 배달학교와 류허현 삼원보의 동명중학 부설 여자초등학교에서 항일의식을 일깨우는 민족교육 시행에 노력하였다.

1920년대 후반 남만주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은 국민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산하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대일항전을 본격화하였다. 오광심은 배달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혁명당에 참여·활동하다가 일제의 만주 침략을 목격하면서 교사를 그만두고 조선혁



미국전략첩보국 대원들과 김학규

명군 사령부 군수처에서 근무하였다. 더불어 조선혁명군 유격대와 한중연합 항일전에서 지하 연락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조선혁명군 참모장인 백과 김학규와 부부이자 영원한 동지로서 인연을 맺었다.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설립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항일세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였다. 조선혁명군의 대표로 선발된 남편은 농부로 변장하고 오광심은 남루한 농촌부인으로 꾸몄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2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였다. 오광심은 검문검색에 발각되지 않도록 이를 전부 암기하여 보고했다는 이야기는 전설 같지만 하다. 단둥·칭따오·베이징 등지를 거쳐 난징에 도착한 부부는 조선혁명군의 대일항전 상황과 인력 및 물자 보급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등 지원을 요청하였다.

**광복군은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광심은 1935년 7월 관내지역 독립운동 단체 사이 통일

정당인 민족혁명당 결성에도 참여하여 부녀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중국 관내지역을 이동하던 임시정부가 충칭에 안착한 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자 총사령부에서 사무 및 선전사업을 담당하였다. 한국독립당의 외곽단체인 국혁명여성동맹에도 함께 하였다. 광복군 총사령부가 시안으로 이동하자 시안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겨 여자 광복군 대원인 지복영·조순옥 등과 함께 기관지 『광복』 간행에 전념했다. 발간 목표는 ‘광복군의 사업 진행과 임무를 여러 동지·동포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정확한 이론·전략·전술을 연구하고 토론하고자 한다’였다. 1942년 2월에는 정모 제6분처의 대원으로 안후이성 푸양에서 지하공작을 통해 광복군의 모병 활동에 나섰다. 오광심은 한국광복군에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여성의 위대함을 망각하지 말자고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였다.

“광복군은 범 삼천만의 광복군이며 삼천만 가운데 일천 오백만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러므로 광복군은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요, 우리 여성의 광복군도 되요. 우리 여성들이 참가하지 아니하면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수레로 말하면 외바퀴 수레가 되어 필경은 전진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을 위하여 또는 광복군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 여성 자신의 권리와 임무를 위하여 이 위대한 광복군 사업에 용감히 참가합시다. 그리고 총과 폭탄을 들고 전선에 뛰어 나아가 우리 여성의 피가 압록강·두만강 연안에 흘러며 이 선혈 위에 민족의 자유화가 피고 여성의 평등 열매를 맺게 합시다.”

**광복이 아닌 또 다른 족쇄는 현실이었다**

오광심은 광복 이후 상하이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주호판사처 처장으로 활동하는 남편을 도왔다. 한인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1946년에는 셴양으로 가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4월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전후로 국내 상황은 미소 강대국에 의한 냉전체제 격화로 분단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귀국 이후 김구와 함께 단독정부 수립 반대 노선과 통일국가 수립에 매진하였다.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승만과 친일민족반역자 세력은 한국독립당과 김구를 제거할 흥계를 꾸렸다. 이들은 안두희를 시켜 김구를 암살한 후 암살 배후자로 김학규를 체포하였다. 훗날 당시의 심경을 「혈루의 고백」에 고스란히 남겼다.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다행히 탈출하여 은거하다가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야 복권되었다.

오광심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구걸해야 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이들 부부는 철저히 파괴된 삶을 살았다. 부부에 대한 박용옥 교수의 평가는 매우 적절하고 아련하다. “젊은 날 조선혁명군으로 또한 한국광복군으로 대륙의 산하를 누비며 빛나는 활동을 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 찬란한 청춘을 송두리째 바쳤던 이들의 열

정에 대해 해방된 조국은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았다.” 그렇다. 오광심은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묵묵히 남편을 지킨 ‘수호신’이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동지로서 말이다. 오광심이 남긴 자작 시에는 그녀의 조국 광복을 향한 열정이 따뜻하게 녹아있다.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쌓여도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여라.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여라.  
 어두운 밤길에 준령을 넘으며  
 님 찾아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님 찾아가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험난한 세파에 괴로움 많아도  
 님 뜻을 그날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님 뜻을 그날 위하여 끝까지 가리라.

정부는 김학규에게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오광심에게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김학규와 오광심



# 중국을 무대로 독립전쟁에 일생을 바친 광복군 지도자 채원개



**채원개(蔡元凱)**  
1895. 3. 24. ~ 1974. 2. 16.  
평안남도 영원  
건국훈장 독립장(1968)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및 광복회와 공동으로 채원개를 2020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채원개는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며 1925년 육군주만 참의부 군무위원으로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에 힘썼다. 이후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하였고, 1940년 설립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참모처장, 총무처장, 제1지대장 등을 역임하며 광복군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 만주에서 독립군 간부로 활동하다

채원개는 1895년 평남 영원에서 태어났다. 서울의 오성 학교(五星學校)에서 신학문을 배우던 중 학교가 폐교하자 1915년 조선보병대(朝鮮歩兵隊)에 입대해 군사전술을 익혔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뜻을 품은 그는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어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입단하여 압록강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고, 통의부(統義府)에도 가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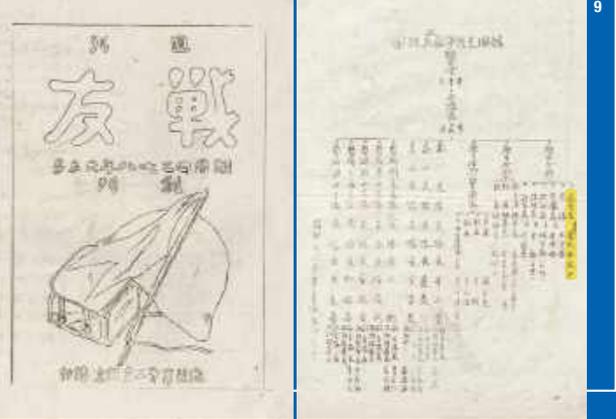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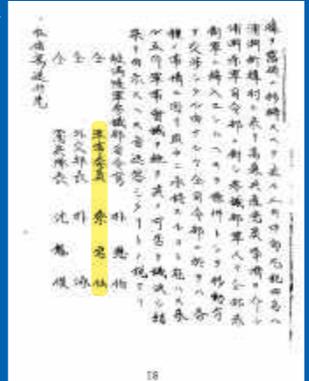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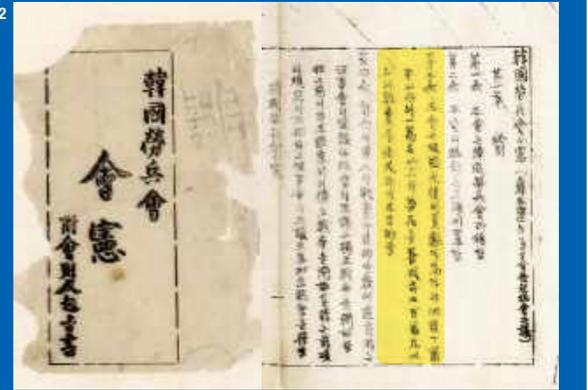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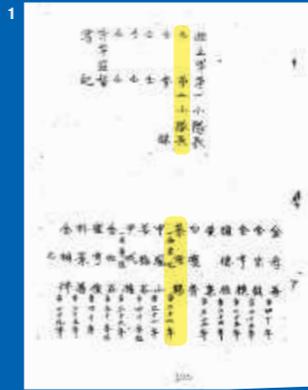
1921년 국민대표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통의부(統義府) 대표로 상하이에 파견되었다. 1923년에는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 특별 회원으로 뤼양강무당(洛陽講武堂)에 입학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1925년 임시의정원 의원 활동을 펼치다가, 다시 만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 군무위원으로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 규합에 앞장섰다.

## 대일항전을 전개하며 한국광복군 지도자로 활약하다

채원개는 1927년 황푸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재직하다가 1930년 중국군 작전참모로 전임하였다. 1930년대 들어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군 독립 제4사 참모장 등 지휘관으로 복무하며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중국군 복무 중에도 1934년 한국독립당 광동지부에 가입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중일전쟁 발발 후 임시정부가 창사에서 광저우로 이동할 때 청사와 거처를 주선하는 등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였다.

채원개는 중국 관내에서 군사간부로서 축적한 항일전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총사령부 고급 참모, 총무처장 등을 역임한 그는 광복군 제1지대장에 부임하여 대일전쟁을 준비하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다. 중국을 무대로 독립전쟁에서 활약하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채원개의 공훈을 기리어 정부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 蔡元凱



- 1 관동청 경무국에서 작성한 대한독립단 명부(1922. 2. 20.)
- 2 『한국노병회 회헌』(1922)
- 3 정의, 신민의 갈등과 내무총장의 조정(『시대일보』, 1925. 6. 4.)
- 4 간도총영사가 작성한 참의부 조사 문건(1926. 3. 17.)
- 5 채원개 환송 기념(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기증)
- 6 채원개와 김구(한중문화협회 제공)
- 7 차리석 회갑 기념(1941. 9. 23.)
- 8 한국광복군 제1지대
- 9 전우 창간호(1945)

# 중국을 무대로 독립전쟁에 일생을 바친 광복군 지도자 채원개

채원개는 1895년 평안남도 영원에서 태어났다. 의명소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오성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익히다가 21세에 군사학을 배우기 위해 조선보병대에 들어가 4년간 복무하였다.



1930년대 들어서 일제의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자 채원개는 중국군 지휘관으로 복무하며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중국군으로 복무하면서도 1934년 한국독립당에 입당하여 광동지부 간부로 활동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경험한 그는 만주 류허현 삼원보로 망명한다. 이후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독립군 간부로 활동하게 된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에 임명되어 복무하였다. 이후 광복군 제1지대장으로 전임해 대일전쟁을 준비하다가 조국의 광복을 맞았다.



1923년 중국 뤼양강무당에 파견되어 실전 경험을 쌓았다. 1925년 참의부 군무위원에 임명되어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힘을 모았고, 1927년 황투군관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광복 이후 1946년 12월에 귀국한 그는 1949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뒤 연대장·사단장을 거쳐 1950년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정부는 채원개의 공훈을 기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으며, 채원개는 1974년 2월 서울에서 눈을 감았다.

# 윌로스 한인비행학교의 설립과 활동(1)

## IV. 3·1운동 이후 재미 한인 사회의 변화④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미주 한인들은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와 파리강화회의를 대비한 선전·외교활동에 주력하였다. 3·1운동 발발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 방향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때 노백린에 의해 군사운동이 일어났다.

### 한인비행학교의 설립

1916년 12월 호놀룰루에 도착한 이래 박용만의 군사운동을 돕던 노백린이 3·1운동의 영향으로 한성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총장으로, 상하이의 통합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으로 선임된 후 미주지역에 군사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군사활동이 재개되었다. 노백린이 군사 분야의 총책임자인 군무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구한말부터 정통 무관으로서의 풍부한 군사 경험을 갖고 있어서 향후 항일무장투쟁의 최적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노백린은 한성임시정부에서 군무부총장으로 선임된 소식을 듣고 1919년 8월 13일 집정관 총재로 선임된 이승만에게 장차 워싱턴 D.C.를 방문하겠다는 전보를 보냈다. 그런 후 그해 9월 11일 상하이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받자 노백린은 하와이를 떠나 북미지역으로 향하였다. 미국에서 군무총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 후 상하이로 건너갈 생각이었다. 그는 1919년 9월 30일 호놀룰루를 떠나 10월 5일 밴쿠버

에 도착하였고 곧 시애틀로 이동해 본격적인 미국 순방을 시작하였다.

노백린은 미국 순방을 시작할 때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우리가 갈 길은 곧은 길, 우리가 가질 목적은 한 목적, 우리는 그 길에 서서 그 목적을 향하고 나아갈 뿐이라. 끝에 한 사람이 남아 있기까지 한 방울 피마저 흘리기까지 아니 싸우지 못할 것이요 아니 다투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말한 후 “차라리 독립싸움에 죽은 자유혼”이 되자며 독립전쟁론을 설교하였다. 또한 그는 군무총장의 명의로 192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제1호를 공포하고 2,000만 명의 남녀는 일인까지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광복군’이 되기를 맹세하고 결단하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에 감명받은 김종립·이재수·신광희 등 쌀 농장주들은 노백린을 도와 미국에서 군사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심하고 1920년 2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윌로스에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였다.

육군 무관으로 활동한 노백린이 군사 경험이 전혀 없는 비행학교를 설립한 데는 재미 한인들의 준비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1919년 5월 국내 3·1운동의 소식에 충격받은 한인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청년혈성단을 만든 후 비행술을 배우고 있었다. 청년혈성단은 독립의 대사업을 이루기 위해 새로 건설한 임시정부에 열성을 다해 충성할 것과 학술 또는 군사상의 기예를 배워 독립운동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애국청년 단체였다. 청년혈성단에는 한인 청년 23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이용근·이용선·이초·장병훈·한장호는 레드우드 비행학교에 입학해 비행술을 배웠고 최자남은 미 해군 비행학교에 입대하였다. 이들이 비행학교에 입학한 것은 청년혈성단의 설립 취지에 따라 독립의 대사업을 위해 군사상의 기예를 배우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미주한인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군사 무기로 등장한 비행기의 가치와 비행 전술의 효과를 깊이 인식하고 비행사 양성이 장차 독립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윤병구는 1919년 9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취임식에서 “청년 중 자격 있는 자

들을 우선 비행기 제조학과 무선 전신학, 그리고 최근의 전술전략을 배우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한민보』는 ‘한국 독립과 조종술’이란 사설(1920.6.4.)을 통해 공군력이야말로 근대 군사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일본의 공군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한인 비행사를 양성한다면 장차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노백린은 육군 무관 출신으로 비행기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비행사 양성이 향후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최신 군사전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새크라멘토의 미국 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한 회견에서 그는 “군단 비행학교 설립의 목적은 한인 청년들에게 장차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는데 도움이 될 비행술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여 비행술을 한국 독립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이로 보면 노백린이 비행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비행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 쌀농사로 부를 축적한 김종립을 비롯한 북가주 지역의 한인들의 확고한 재정 지원, 여기에 비행술을 독립전쟁을 위한 최신 군사전술로 인식한 노백린과 재미한인사회의 호의적인 여론 등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 한인비행학교의 교육과 운영

윌로스 비행학교를 시작한 후 비행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노백린은 주로 육상 군사훈련 위주로 교육하였다. 1920년 6월 22일 첫 번째 비행기를 도입하고 이틀 후 두 번째 비행기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또 1대를 더 구입해 총 3대

의 비행기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비행교육과 훈련에 들어갔다. 제대로 된 정규 비행훈련을 위해 레드우드비행학교의 책임자이자 교관으로 활동 중인 프랭크 브라이언트(Frank K. Bryant)를 초빙해 비행교육을 맡겼다.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비행술을 배운 장병훈·오림하·이용선·이초·이용근·한장호는 부교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6명이 윌로스 비행학교에 참여한 것은 노백린이 1920년 2월 5일 직접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방문해 그들을 격려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졌다.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참가한 학생 수는 24명이었고, 한때 30명까지 증가되었으나 7월 비행사 양성소 개소식 때 25명을 유지하였다. 교사(校舍)는 플린트 학교를 임시로 사용하였다가 폐교로 방치되어 있던 퀸스 학교로 옮겼다. 교육 과정은 비행기를 구입해 본격적인 비행술을 가르치기 전까지 노백린에 의해 사격과 제식훈련 등 기초적인 군사훈련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기본 군사교육 외에 무선통신, 비행기 정비, 영어와 민족 교육도 병행하였다.

비행학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쌀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쌀농사로 많은 돈을 번 김종립이 주로 담당하였다. 그는 비행학교를 위해 4만 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였고 비행기 구입과 교육을 위해 20,000달러의 재정을 부담하였다. 그 외 윌로스와 그 인근 지역에서 쌀농사를 하던 이재수, 신광희, 이암, 윤응호 등이 재정을 후원하였다. 김종립을 포함한 이들 후원자들은 1920년 7월 25일과 26일 비행사 양성사 장정과 비행사 양성사 취지서를 발표하여 조직적인 후원활동에 나섰다.



# 100년의 관행 불필요한 답습

## 인감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사용한 일제의 잔재로, 일본이 우리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관청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그들의 오랜 식민지였던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감, 조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19세기에 들어 개인 문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하면서 인감제도의 시대가 열렸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감증명제도’를 강제로 도입하였다. 광복 이후 일제의 색은 없어지고 무색해지고 있지만 인감은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은 주요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나 금융기관 대출 등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본인 의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가령 공정증서의 작성, 공탁물의 수령, 부동산등기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고 그 후에 등록된 인감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데, 빈번한 발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비용 지출이 막대한 것이 문제였다.

사실 인감증명제도는 이면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수요자들의 경우 자신이 신고한 인감이 무엇인지 및

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반복되는 과정이 많고 불편한 상황도 자주 연출되었다. 대리발급도 문제였다.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임자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변조 및 부정발급 사고 등의 문제도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 일제 잔재는 폐지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2009년 정부는 인감증명제도를 축소해 점차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오래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먼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다.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하고,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 사실을 기록·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재산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폐지되지 않은 나머지 인감 요구 사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한 후 그 방안이 정착되면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었다. 대표적인 대체 수단으로는 2012년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해야 하고 분실할 우려가 있으며, 허위 대리 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늘 지적되어 왔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본인의 필체를 사용하므로 대

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위조 및 변조가 인감에 비해 어렵다. 무엇보다 부동산·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인감 대체, 적극 홍보와 관심 필요해

제도를 대체하여 시행한 후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한 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낮췄고, 시행령을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3%에서 5%대까지 오르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한편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요기관이 많다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수요기관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로 관심이 부족하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단점에 대해 모르고 관행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자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심이 저조한데, 기관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본인확인 인증이 가능한 21세기를 살고 있다. 예금·적금도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시대다.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할 때도 인감도장 대신 사인하는 것으로 대체한 지 오래다. 이제 11월이면 공인인증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인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100년을 답습해온 인감 대신 시대에 맞는 본인확인 인증 사용이 익숙해지는 날을 기대해볼 때가 된 것 같다.



# 14세기 후반

## 위기의 시대

환절기가 되면 인체가 외부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듯, 국제질서의 과도기에는 국가가 외부 침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14세기 후반, 원나라의 세계 패권이 약해지면서 명나라가 동아시아 최강으로 떠오른 시절도 그러한 환절기였다. 이 시기에 외부 침략에 맞서 한민족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 홍건적·왜구의 침략

몽골 초원에서 출발해 중국대륙으로 옮겨간 몽골제국은 동아시아에서 명멸한 강대국들 중에서 역대 최강이었다. 강대국이었던 만큼 나라가 몰락할 때도 파장이 컸다. 원나라가 몰락하고 세계질서가 급변하던 시기에 동아시아는 일대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소용돌이의 진원지인 중국대륙에서는 한족들의 반란으로 홍건적이라는 군사조직이 활개를 치고, 이런 속에서 주원장·장사성·진우량 같은 군웅들이 활약하였다. 이 흐름이 1368년 명나라 건국으로 이어지고, 원나라 왕실이 북쪽 초원으로 쫓겨 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한 영향이 이웃 지역들에서도 나타났다. 한반도에서는 1392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다.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일왕이 2명 공존하던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남북조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늘날 오키나와로 불리는 유구열도에서는 1406년에 삼국 통일이 일어났다.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동요하는 속에서



최영장군묘 입구에 있는 최영 장군의 상상화

한민족은 두 방향의 외부 침략을 받았다. 대륙에서는 홍건적, 해양에서는 왜구가 한민족을 침략하였다. 몽골 정부군과 여진족 군소 집단들도 한민족을 위협했지만,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대표적이었다.

이런 속에서도 한민족의 자기방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1351년에 등극한 공민왕의 개혁도 이런 시스템에 기여하였다. 공민왕의 개혁으로 신진사대부

라는 신흥 세력이 성장하고 이들이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지만, 공민왕 때 형성된 새로운 기운은 한민족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기운이 국가 시스템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16세기 임진왜란이나 19세기 구한말 때처럼 민간의 의병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 14세기의 외부 침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는데도 민간 의병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이 시기에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 창에 찢리면서도 진격한 최영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군을 이끌고 외부 침략에 맞서며 영웅으로 급부상한 인물이 최영 장군이다. 그는 ‘금 보기를 둘 같이 하라’는 격언으로도 유명하지만, 『고려사』 최영 열전에 따르면 격언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최영이 16세 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너는 금 보기를 둘 같이 하라’고 하였다. 최영은 이 말을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최영 열전은 말한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대신, 그는 나라를 지키는 데 온 마음을 다하였다. 1316년에 무인 가문이 아닌 사대부 가문에서 출생한 최영은 양광도(경기·충청)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왜구 격퇴에 공을 세워 임금 경호원인 우달치로 발탁되었다. 그는 홍건적의 침략으로부터 공민왕 정권을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홍건적에 점령된 개경을 두 번이나 탈환했을 정도다. 공민왕은 반몽골 정책을 펼치기 전에 몽골의 요청으로 장사성 반란군을 토벌하는 데도 참가하였다. 이때 벌어진 수십 차례 전투에서 그는 지휘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전투도 잘하는 장수임을 입증하였다. 장사성 부대와와의 전투에서는 몇 번이나 창에 찢리면서도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하는 강인함을 발휘하였다. 국내에서 벌어진 왜구와의 전투에서도 그는 용감성을 보여줬다.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최선봉에서 돌진하다가 왜구 병사가 쏜 화살이 입술에 꽂혔는데도, 그는 태연하게 화살을 쏘아 그 병사를 쓰러트렸다.

### 여진족 군단을 끌고 온 이성계

이 시기에 고려 본토 출신인 최영과 쌍벽을 이루며 영웅으로 급부상한 인물은 이성계다. 최영과 달리 이성계는 고려 왕조의 주변부에 근거지를 뒀다. 이성계 가문은 몽골제국의 관할을 받던 철령 이북의 쌍성총관부에 거점을 두고 있다가 공민왕이 이곳을 수복할 때부터 고려왕조에 협력하였다.

이처럼 이성계와 최영은 출신지는 달랐지만, 외세 침략에 맞서 무패 전적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이성계 역시 홍건적으로부터 개경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고, 공민왕을 폐위시키고자 몽골이 보낸 1만 군대도 격파하였다. 또 여진족과 왜구의 침략 역시 대파하였다. 우왕 때인 1380년에 왜구를 상대로 거둔 황산대첩은 유명하다.

최영이 고려 주류 출신이고 이성계가 비주류 출신이라는 점 외에 이들을 구별 짓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최영은 정규군을 기반으로 한 데 비해 이성계는 사병 부대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성계의 근거지인 쌍성총관부가 여진족 거주지였으므로 그의 사병 부대는 여진족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여진족 사병을 보유한 이성계가 고려왕조에 충성하는 상황은 여진족 유력자들이 고려 왕실에 가담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음력으로 세종 19년 8월 7일 자(양력 1437년 9월 6일 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성계의 최측근인 여진족 이지란은 최소 500호 이상의 여진족 가구를 거느린 세력가였다. 이 외에 주매·금고시첩목아·허난두·최야오 내 같은 10여 명의 이성계 측근들도 세력을 거느린 유력자들이었다. 고려 왕실에 대한 이성계의 충성이 여진족 유력자들의 고려 왕실 지지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고려 말에는 정규군 병력이 충분치 않았다. 혼란기에 노비로 전락하는 양인들이 많았고, 이들 중 일부는 귀족이나 유력자들의 사병으로 편입되었다. 이성계의 사병 부대는 고려 정규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이성계의 오라산성 전투 상상화

### 사비 털어 민족을 지킨 최무선

이 시기에 한민족 수호에 기여한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고려 군사력을 발전시킨 화약 기술의 개발이다. 이 기술을 도입한 최무선에 관해 조선 『태조실록』의 최무선 졸기는 “천성적으로 기술과 머리가 좋고 계책이 많으며 병법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고 말한다.

전쟁과 무기에 관심이 많아 청년기에 국영 군수공장인 군기시에 취직한 그는 화약 및 화포 국산화를 위해 40대 중반을 넘은 나이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열정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을 내줄 리 없었다. 그는 빈손으로 귀국하고 말았다. 원나라뿐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기술을 얻을 길이 없었다. 고려 정부는 기술 국산화보다는 완제품 수입 쪽으로 생각을 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무선의 집념은 빛을 발하였다. 그는 고려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 화약 기술자를 수소문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미 포기한 뒤였기 때문에

자기 비용을 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인 기술자 이원(李元)을 찾은 그는 자기 집에서 옷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수십 일간 기술을 배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다음 정부 관리들의 퇴짜를 맞으면서도 수없이 설득한 끝에 화통도감 설치를 관철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화포는 1380년 진포 해전에서 왜구 선박 500척을 격파하는 데 기여하였다. 『삼국지』의 적벽대전 못지않은 대승이었다. 사비를 털어 화약 연구에 매진한 최무선의 눈물겨운 노력이 맺은 결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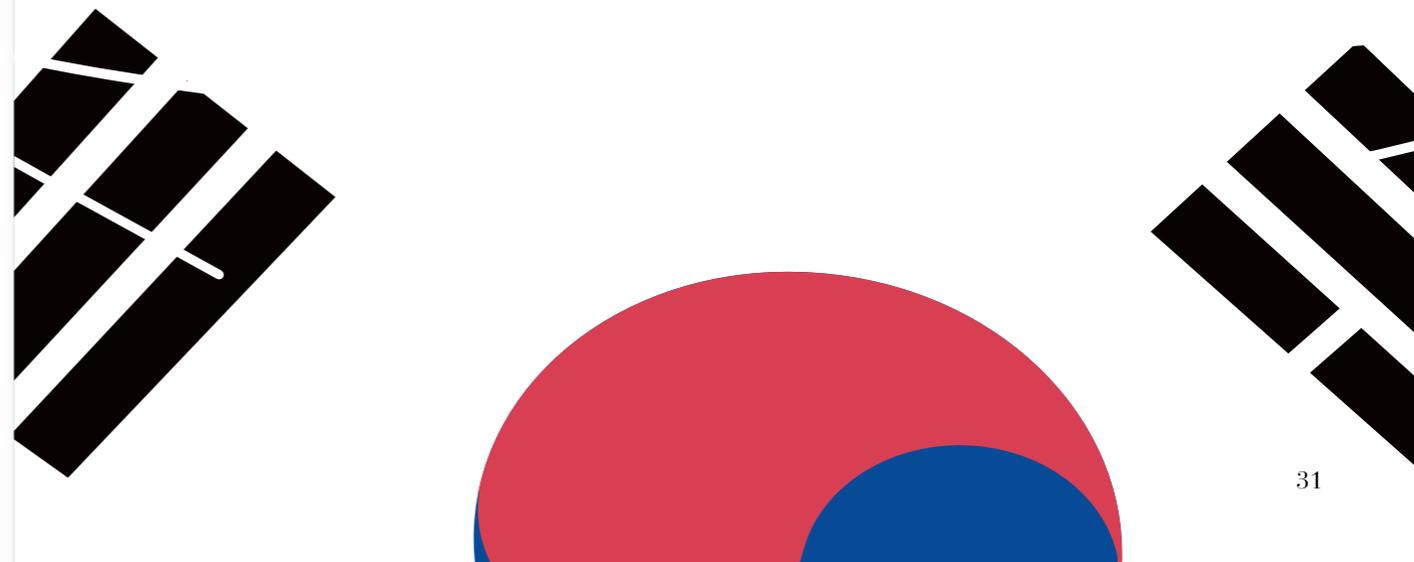
14세기 후반의 한민족이 나라를 지킨 것은 한민족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가능하였으며, 우수한 인재의 활약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최영 같은 용감한 전사가 출현하고, 이성계가 여진족 군단을 끌어오고 최무선이 사비를 털어 신기술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인재가 시의적절하게 나타나 나라에 공헌한 것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 제32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수상작

## 우리 겨레의 외침

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전>을 보았다. 내가 아는 김구, 안창호 등의 독립운동가 외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곳에 있던 그림과 조각상들도 실감나게 보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명언이 기억에 남는다. 명언들을 되새기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독립기념관에 갈 때는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았는데,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의 슬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독립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투쟁 역사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서울특별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6학년 한서희



# 다시 쓰는 단양팔경

## 단양팔경 외전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이다. 여행도 그렇다. 어제까지는 핫스팟이었던 곳이 내일을 기억할 수 없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명승지인 단양팔경도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단양팔경 외전(外傳)’이다.

- 1 상공을 활공하는 패러글라이딩
- 2 카페 산



###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이 현실로

단양에는 남한강을 따라 수려한 경치 여덟 곳을 일컫는 ‘단양팔경’이 있다. 그 가운데 제1경은 고즈넉한 남한강에 홀연히 솟은 도담삼봉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할 때 태조 이성계를 도왔던 정도전(1342~1398)은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지을 만큼 도담삼봉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삼봉 중 가운데 있는 봉우리에 정자를 짓고 시를 읊었다고 한다. 우열을 따질 수 없지만 이 같은 이유로 도담삼봉을 단양팔경의 으뜸으로 꼽는다.

그 뒤를 이어 문처럼 생긴 석문, 충주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구담봉과 옥순봉, 그리고 선암계곡을 따라 이어진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이 꼬리를 물고 경치를 뽐낸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던가. 단양팔경도 시대에 따라 외전(外傳)이 생겼다.

### 단양팔경 외전의 으뜸, 하늘에서 만나다

그 으뜸은 해발 600m에 자리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면 하늘과 맞닿은 듯한 공터에 이른다. 누군가 이곳의 이름을 묻는다면 하늘공원이라 불러도 될 만큼 시야가 탁 트였다. 공터 끝자락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가장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단양의 풍경은 거침없고 막힘없다. 모두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가도 “뛰어!” 하는 구령에 귀를 쫓긋 세운다. 소리의 진원지에서는 달팽이처럼 등짐을 짊어지고 뿔박질하는 패러글라이더가 보인다. 그리고 이어지는 외마디 비명 “으악!”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아간 이후 활공장엔 다시 평온이 깃든다.

‘새처럼 나는 기분은 어떨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패러글라이딩 체험에 도전한다. 안전교육을 받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 앞에 선다. 구경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마르지 않는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긴장감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교관이 기념사진을 찍어주는데 한쪽 입꼬리만 애써 끌어올려 사진을 찍는다. 드디어 이륙 준비가 끝났다. 등 뒤에 바짝 달라붙은 교관이 소리친다. 그 목소리는 칼날보다 예리하고 비수보다 날카로워 귓볼을 찢을 듯 후벼 판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하늘이다. 하늘을 유영하듯 날고 있는 내 모습에 감격 또 감격한다. 겁에 질려 쫓깃쫓깃하던 심장은 짜릿한 쾌감으로 변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유쾌하다 것을, 바람을 가르는 것은 한 없이 상쾌하다는 것을. 내 인생 최초의 비행은 성공이다. 패러글라이딩 활공 시간은 보통 15분 안팎이다. 숙련된 교관이 등 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작해주기 때문에 체험자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 적잖은 비용이라 부담스럽지만 평생에 한 번은 체험해볼 만하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한편에 있는 ‘카페 산’이 단양의 핫플레이스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카페임이 분명하다. 커피는 물론이고 직접 구워내는 빵까지 입맛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 하늘에서 보는 특별한 풍경과 짜릿함

단양팔경 외전 제2경은 만천하 스카이워크다. 단양강 수면에서 80~90m 지점에 25m 높이로 세워진 전망대인데 이곳에서 보는 풍광이 압도적이다. 파배기처럼 배배 꼬여 하늘로 솟구친 전망대를 향해 한발 한발 오르면 발아래 전망이 조금씩 넓어진다. 전망대 꼭짓점에 이르면 허공을 향해 돌출한 전망대가 보인다. 전망대 바닥은 천 길 낭떠러지가 고스란히 보이도록 고강도 삼중 투명 강화유리를 설치해 놓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늘을 걷는 기분이 든다. 발끝에서부터 짜릿하게 전해지는 야릇한 느낌. 싫지만 미워할 수 없고, 두렵지만 외면할 수 없다.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았지만 산 정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장쾌한 풍경이다. 손에 잡힐 것 같은 단양 읍내와 멀리 소백산까지 또렷하게 조망된다.



3



4



5

만천하 스카이워크 아래에 짚 와이어가 있다. 과거 호주와 뉴질랜드 개척시대에 음식물이나 우편물 등을 전달하려고 설치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스틸을 맛보는 익스트림 레포츠로 자리 잡았다. 짚 와이어는 산기슭을 따라 980m 구간을 최고 속도 약 80km로 하강한다. 소요시간은 1분 남짓으로 눈 깜짝할 사이다. 1코스는 만학천봉과 환승장을, 2코스는 환승장과 주차장을 잇는다.

**트레킹 그 이상의 감동**

중국의 향산 절벽에 설치된 가교를 뜻하는 ‘잔도’가 단양에도 있다. 단양강 잔도가 그것인데 단양팔경 외전 중 제3경이다. 공식 명칭은 ‘수양개역사문화길’이지만 전체 구간에서 백미인 이곳을 ‘잔도길’이라 부른다. 단양역에서 출발할 경우 상진대교를 건너 왼편에 잔도길 진입로가 보인다. 단양역에서 1km 남짓한 거리다. 종착지인 수양개



6

선사유물전시관까지는 4.2km 가량 된다. 본격적인 잔도길은 상진대교와 철교를 지나면서부터다. 강물 위 깎아지른 절벽 20m 정도 위치에 보행 길이 설치되어 있다. 보기엔 아찔하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눈이 호사를 즐긴다. 잔잔한 수면에 물그림자를 드리운 잔도의 모습이 이국적이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 위로 기암괴석의 물그림자가 춤추듯 일렁인다. 잔도 끝자락에 이르면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연결된다. 여기서 1.5km 정도를 더 가면 이끼터널이다. 왕복 2개 차로 옆 비스듬한 벽면에 초록색 실크벽지를 붙여놓은 것 같은 이끼가 명물 중에 명물이다. 날씨가 습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난다. 지난 긴 장맛 덕분에 이끼가 만개했다. 이끼터널을 지나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이른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은 ‘선사와 역사를 잇는 고리’라는 콘셉트로 개관한 박물관이다. 1983년 충주댐 건설 당시 수몰지구 문화유적 가운데 구석기시대부터 마한시대까지의 유물을 전시한다. 유물전시관 뒤편엔 빼놓지 말고 챙겨 봐야 할 단양팔경 외전 제4경이 있다. 수양개 빛터널이다.

길이 200m, 폭 5m 규모인데 국내 최초의 빛 터널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방치되던 것을 2017년 4월 빛 터널로 개보수해 재개관했다. 해가 질 무렵이라면 야외에 조성된 인공 장미 군락지도 챙겨보자. 5만 송이에 이르는 인공 장미가 화사한 조명을 밝히며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 3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단양천
- 4 산기슭을 따라 하강하는 짚 와이어
- 5 단양강 수면에서 높이 20m 지점에 설치된 산책로
- 6 수양개역사문화길의 핵심 구간인 잔도길
- 7 야간에 즐기는 수양개빛터널



7

# 제국주의 폭력에 희생된 박열

글 강성을 영화평론가, 광운대학교 교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불편한 감정은 대부분 제국주의의 폭력에서 기인한다. 일제라는 용어가 일본 제국주의를 줄여서 칭한 것이니 단어 안에 이미 제국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국주의는 식민지 피지배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일제강점기 하의 조선을 그린 영화에는 당연히 제국주의의 폭력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 영화 <동주>와 닮은 것과 다른 것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다른 영화들처럼 이준익 감독의 <박열>도 제국주의 폭력에 희생된 인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준익은 이 영화 직전에 <동주>를 연출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주>는 윤동주와 그의 동갑내기 사촌 송몽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가 슬픈 것은 두 사람이 일제의 모진 폭압에 의해 27세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를 쓰면서 내적인 성찰을 하던 윤동주, 혁명을 실천하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송몽규는 모두 타의에 의해 일제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동주>를 만든 뒤에도 이준익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하고픈 말이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이번에는 박열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 <동주>는 윤동주와 송몽규를, <박열>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주인공으로 한다. 영화 제목은 특정 인물만 지칭하지만, 실제 내용은 두 사람의 행적을 그린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비슷한 점이 많다. 형식적으로도 두 영화는 재판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 '법정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기법적으로도 감옥에 갇힌 두 인물을 심문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 스타일로 활용하였다. 두 영화에 출연한 인물이 많이 겹쳐 <박열>을 보면 자연스럽게 <동주>를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주>가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싸운 조선인 윤동주와 송몽규를 그리고 있다면, <박열>은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싸운 조선인 박열과 '일본인' 가네코



를 그리고 있어 주로 두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이준익의 영화 세계에서는 매우 특이한 작품이 된다. 물론 이준익의 영화세계에서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 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이 지배자와 맞서 싸우는 피지배자인 조선인과 동거하면서 그보다 더 과격하게 싸우고 있으니 특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가네코는 재판이 끝난 1926년에 일본 정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음에 분개해 자살하고 말았다. 박열이 22년 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과 비교하면, 박열보다 가네코가 더욱 치열하게 일제에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관동대지진과 관동대학살

영화 <박열>을 거론하자면 자연스럽게 관동대지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관동대지진을 말하면 당연히 관동대학살을 언급해야 한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일본 미나미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대한 지진을 말한다. 이 지진으로 10만 명이 사망했고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으며, 쓰나미가 몰려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면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 피해자만 6,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박열>도 이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잔혹한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조선인 박열이 핵심 멤버로 있던 불령사가 대역사건을 꾸렸다고 부풀렸다. 일본의 계락을 눈치챈 박열은 다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네코와 함께 일을 꾸렸다고 말한 뒤 문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제부터 영화는 예비 판사가 박열과 가네코를 심문하는 과정, 본심에서 박열과 가네코가 일제의 재판정에서 싸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닌, 아나키스트인 두 사람이 재판정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제의 잔혹한 억압과 천황제의 허구성이다. 당시 아나키스트에게 일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민중의 평등을 무시하고 단지 인종의 차이를 차별로 둔갑하게 만들고, 인간을 신격화하여 섬기게 하며, 폭력적인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나쁜 제도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1923년 9월 1일이다. 안타깝게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조차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당시 재판에 넘겨진 자경단은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풀려나와 처벌받은 이들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자료가 없다며 자신들의 폭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화 <박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런 역사와 현실 때문이다. 우리에게 제국주의의 폭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열(2017)**  
드라마, 모험, 멜로/로맨스 | 감독 이준익  
출연 이제훈(박열 역), 최희서(후미코 역),  
김인우(미즈노 역)

# 나만의 반려 식물 맞이하기

우리는 '반려'가 친숙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의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들이 식물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그린 메이트'라고 부른다. 그렇게 규모는 작지만 보다 큰 의미의 힐링 정원이 집안에 조성되고 있다.



## 식물이 주는 위로

최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로즈메리·애플민트 등 각종 허브를 비롯해 콩나물·대파·토마토 등 작물을 키우는 '홈파밍'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별도의 땅 없이도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주말농장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집에서 하게 된 것이다.

홈파밍은 과거 유행하던 텃밭 가꾸기와는 조금 다른 특색을 지닌다. 텃밭 가꾸기의 경우 농촌 생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유기농 작물을 직접 수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홈파밍은 재배가 쉬운 식물을 집안에서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즉 홈파밍족들은 그렇게 거창한 목표를 갖고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식물을 직접 가꾼다는 것은 생산적이면서도 보람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수확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척박한 세상을 잘 버텨 나간다는 의미에 대한 비중도 크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낸 것처럼 너도 나처럼 잘 견뎌'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무언가 해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퇴근 후 적절한 일상을 함께하는 상대가 되어주며 적잖은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또 위안을 얻는 대상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는 반려자인 셈이다.



## 반려 식물 맞이하기

홈파밍족들은 반려동물에게 미용을 시키듯 반려 식물을 예쁘게 가꾸는 홈가드닝에도 관심이 높다. 이를 두고 식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의 '플랜테리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인테리어란 말에 대단한 안목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특별한 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반려 식물을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식물을 집안에 들일 때는 가장 먼저 어디에 놓을지 생각해야 한다. 그 위치에 빛이 들어오는 정도와 바람, 습도 등의 환경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름철 강한 빛에 타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햇빛이 드는 곳이면 가장 좋다. 빛이 잘 드는 실내라면 시그레이프나 덩이뿌리식물을, 베란다 빛이 좋다면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및 허브 등을 추천한다.

만약 초보자일 경우 거실 중앙이나 커튼이 쳐진 곳의 창가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사광선이 안 드는 곳이 식물을 키우기에 가장 수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늘진 곳에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몬스테라와 같은 음성을 지닌 식물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렇더라도 주기적으로 빛을 쬐어주고,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물을 많이 주거나 자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공간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빛이 드는 정도와 더불어 해당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식물을 골라보자.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식물을 어디에 배치했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은 좋은 환경을 갖춘 셈이다. 이제 식물의 종류에 빛과 물을 알맞게 조절하고, 10~25°C의 온도를 맞춘 뒤 환기를 잘 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 소유물에서 반려자로

과거 1900년대 화분을 키우고 잔디나 화단을 가꾸는 일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 화분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집을 꾸미는 일이었다. 주로 내 집을 마련한 후 집을 꾸미기 위해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것은 일종의 성공을 상징하는 취미활동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반려 식물 키우기에 대한 열풍이 다시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데는 미세먼지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덕에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아진 사람들은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녹색 식물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집들이에 초대받거나 사무실 개업식에 찾아갈 때야말로 이만한 선물이 없다.

그렇게 시작된 분위기는 어느새 식물을 반려하는 문화로까지 변화했다. 인테리어의 일부이었던 식물 가꾸기에 대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관련 커뮤니티도 많이 생겨나서 홈파밍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 않고, 마음만 먹는다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SNS에서는 다양한 반려 식물을 키우는 홈파밍족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반려 식물로는 방울토마토·블루베리와 같은 식재료부터 작은 꽃 화분, 푸른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잔디 등 종류도 다양하다.



# 우산꽃이 빈자리를 채우며



꽤 먼 소도시에서 치른 지인의 자녀 혼사를 축하해주고 돌아오는 휴일 오후였다.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도 짹짹하던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집 방향의 마을버스를 타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농촌지역에선 곡식들이 한창 자랄 시기라 고마운 비겠지만, 도심의 거리는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인해 온통 혼란에 빠져버렸다.

차창을 찢어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스쳐가는 바깥세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좁게 좌판 펼쳤던 상인들은 물건 급히 걸어 대피하느라 어수선하고, 옥상 팻랫줄에 걸린 많은 옷들과 씨름 중인 여인은 손길도 마음도 분주하였다. 학원 시간에 쫓기는지 종이박스를 덮어쓰고 내달리는 아이의 뒷모습이 양증맞기보다 애잔해 보였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텅 비었던 인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우산들로 채워졌다. 두 사람이 하나의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걷고 있다. 어떤 관계인지, 도착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참 아름다운 우중풍경(雨中風景)이었다.

그런 타인들 바라보기는 잠깐일 뿐, 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기세를 보아 먼지점으로 끝나진 않으리라 예상하였지만, 집 인근 정류장에 내리자 채찍 빗발은 더 굵어졌고 근처에 우산 파는 곳도 없으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여기서 집까지 제법 걸어야 하고 모처럼 갖춰 입은 정장과 구두와 젖으면 안 될 짐이 양손에 들렸기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이 된 아내한테 우산을 챙겨서 마중 나와 달랬더니 얼마 뒤 도착한 아내는 길쪽하고 낡은 우산, 그것도 하나만 들고 왔다. 집에 남은 거라곤 고장 나서 못 쓰는 우산뿐이라며 눈앞에 없는 식구들까지 나무라는 듯했다. 괜한 타박이 아닌 것이, 비가 오는 아침이면 가족들 간에 우산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먼저 집을 나서는 사람한테 선택권이 있기 마련이니 나중 사람은 볼품이 없거나 손잡이가 부실하거나 살이 부러진 우산밖에 선택권이 없었다. 그나마 들고나갔던 우산이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아 개수가 부족한 탓이다.



아내는 우산을 펼쳐들고, 나는 양손에 짐을 나눠든 채 보조 맞춰 걸었다. ‘열정 푸르던 시절엔 우산대용의 양산을 함께 쓰기도 했었고 목적지가 멀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었지.’ 그 당시의 낭만이랄 것까진 없으나 그래도 참 오랜만의 빗속 동행이다. 중간쯤에서 서로 역할을 바꾸느라 살펴보니 내 옷이며 짐은 꽤 멀쩡한데, 아내의 한쪽 어깨 절반쯤은 젖어버렸다. 내가 비를 덜 맞도록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여 주느라 그리되었을 것이다. 고마운 마음에 나도 최대한 아내한테 우산을 받쳐주었다. 서로 붙어난 몸이지만 가깝게 붙을 수록 덜 젖는다. 그렇게 잘 도착했다. 집안 우산꽃이에 있는 것들 중 가장 오래되어 볼품없고 접이 기능이 없어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겨졌던 장우산 덕택에 이만큼이나 마비를 덜 맞고 왔다. 수십 년째 나의 우산 이상이 되어준 인생 배우자의 수고 덕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참 한심한 노릇이다. 집에 도착해 결혼식 답례품을 풀어보니 최신형 우산이 들어있지 않은가. 생각 넓은 혼주가 이런 때 요긴히 쓰라고 준비했을지 모르거늘 스스로 미련한 짓을 하고 말았으니 누굴 탓하랴. 잘 간수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니 좋은 살림 하나 장만하였고, 모양이며 색깔도 고급스러워서 다음번 비 오는 날엔 젖 먼저 나가는 사람 손에 선택될 것이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소나기를 맞닥트린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 소나기는 어느 구름에서 내려올지 모르고 일기예보인들 꼭 맞으란 법도 없으니 오늘처럼 우산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오죽이나 많았던가.

어린 시절, 산골 집엔 우산과 비옷이며 장화가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는 아버지 모습을 별로 보질 못했다. 마치 농부의 숙명처럼 가랑비든 장대비든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으셨으며 가뭄 끝의 단비가 내릴 땐 더욱 그랬다. 고마운 비를 주시는 하늘 뜻에 거역하는 짓이라 삼가신다는걸, 호박잎이나 연잎 뜬어 머리에 쓰고 내달리던 시절이 지나고서야 깨달았다. 아쉬울 땐 잘 쓰고 나서 팽개쳐두었다가 오늘 같은 날이 되어야 문득 고마움을 알아주는 물건이오. 필요할 땐 가장 넓게 펼쳐려 하고 소용없을 땐 가장 작은 부피로 줄이다 못해 거추장스러운 천덕꾸러기도 되는 우산.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산과 같은 이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었지만, 나는 타인에게 우산 결을 내준 적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내가 어려울 때 우산을 씌워줄 이가 누가 있을까. 필요해서 빌린 다음에 돌려주질 않은 건 몇 개쯤일까. 일상 중에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서둘러 지나간 여우비 덕분에 모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다.

# 무뚝뚝했던 동료와의 소통 성공

군 생활을 마치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초기 시절, 나에게 유난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동료 여직원이 있었다. 나와 함께 입사했지만 나이는 나보다 세 살 적었다. 말은 업무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라 상호 간에 대화할 일이 많았는데 다른 직원들에게는 친절한데 유독 나한테만 불친절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이런 여자가 있을까?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될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쌀쌀하게 굴까?’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내어 식사라도 했으면 한다고 정중하게 제의했다. 평소 성격이나 행동으로 보아 응당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거절하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았다.

바로 다음 날 일과를 마치고 근사한 한정식 식당으로 갔다. 그녀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와 함께 맥주도 몇 잔씩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약간 무르익었고, 이때다 싶어 “회사에서 왜 나에게 불친절하고 쌀쌀하게 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뜸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했을 뿐인데요. 오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라며 자신은 나에게 평범하게 대했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 나를 대하는 자세가 기분 나쁘리만큼 표가 날 정도였는데, 알고도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알 길이 없었다.  
“우리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특별히 못 지낼 것도 없고 나한테만 잘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어투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앞으로 평범하게 잘 지냈으면 해요.”  
“만약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기분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제법 유쾌한 대답에 기분 좋은 자리가 되었다. 그 후로는 그녀의 행동이 눈에 띌 정도로 달라져 불편함이 없고 서로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난 후 그녀가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의해왔다. 한우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고,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노래방이라도 갔으면 하고 제의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였다. 우리는 1시간이 넘도록 맥주도 마시면서 마이크를 주고 받으며 노래를 불렀다. 서로 아는 노래를 부를 때면 각자 마이크를 들고서 함께 부르기도 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제법 늦어 헤어질 때는 택시를 잡아 주고 택시비도 내어 주었다. 다음 날에 출근해 “어제 잘 들어가고 폭 쉬셨어요”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원만해졌으며 업무 협조도 잘되어 자주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저녁식사도 하며 영화 구경도 가게 되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항상 미소 짓고 상냥하며 친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인상으로 호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확정은 아니지만 장래까지 생각하며 현재도 계속 만나고 있다. 아직 결혼 이야기까지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그녀만 승낙하면 동반자가 되길 바라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그냥 표면상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역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격언이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01

#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사진 최초 공개 '모녀 독립운동가 문또라·정월라'

독립기념관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난 8월 6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강의실에서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사진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이 평생 수집한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사진 및 한인의 미주 이민사 관련 사진들로 '문또라·정월라 모녀 사진' 등 51점이다.

민병용 관장은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중 1973년 도미하여 1974년 8월부터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지사 특파원으로 활동하였다. 1978년 1월 13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주 이민 75주년 기념행사에 취재차 참석하였다가 생존하고 있는 초기 이민자와 독립운동가를 만나게 되면서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1986년 『미주 이민 100년, 초기 인맥을 캔다』를 편찬하였고, 수집한 미주 이민사 및 미주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약 220여 점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미주지역 독립운동은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하와이에서 대한인부인회 및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에서 활동했던 모녀(母女) 독립운동가 문또라(건국포장 2019)·정월라(대통령표창 2018) 관련 사진들이다. 또한 일가족 8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아 미주지역 독립운동 명문가라고 불리는 강명화(애족장 2012) 선생의 사진도 최초로 공개한다. 이외에도 박재형(애족장 2017)·차경신(애국장 1993) 부부, 김성권(애족장 2002)·강혜원(애국장 1995) 부부 등 미주지역에 독립운동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사진이다.

이 자료들은 독립기념관의 연구·전시·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민병용 관장과 협의하여 미주지역에서 수집·정리 중인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추가로 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 문의: 자료부 김주성 연구원(041-560-0424)



1 문또라와 정월라  
2 박재형·차경신 부부 독립운동가  
3 김성권·강혜원 독립운동가와 아들 김인  
4 강명화와 미주 한인사회 인물들(맨 우측 강명화, 맨 좌측 아들 강영각)

02

# 우리가 몰랐던 한국광복군의 이면

##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 75주년 및 개관 33주년,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의 일상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3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한된 인원의 현장 참가 및 Webex meeting을 통한 온라인 화상 중계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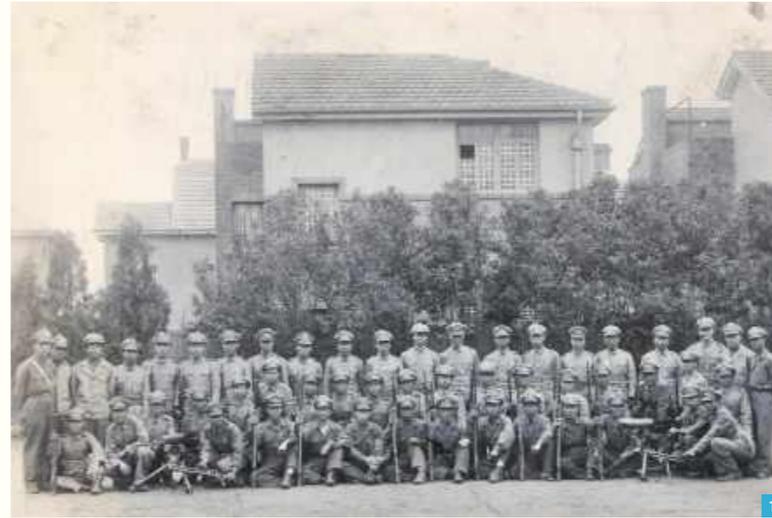
한국광복군은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지난 독립투쟁의 과정 끝에 1940년 9월 15일 충칭에서 창설하였다. 이에 1942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합류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한 1945년 초부터 미국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과 협력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인지도는 결코 낮지 않다. 무장독립운동의 계보를 한말의병-독립군-한국광복군으로 계승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과서 수록 및 독립기념관 등 근현대사박물관의 주요 전시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독립운동사 분야에서도 비교적 연구 성과가 많은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로 한국광복군의 구성과 훈련, OSS 작전 등 주체들의 활동과 투쟁 과정, 국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연구 현황을 좀 더 확장시켜 한국광복군을 주제로 하였다. 그들의 복식과 음악 외에 한국광복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문화사와 한중문화교류사의 관점에서 한국광복군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광복군의 이면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류학·사회학·중국현대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과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결합하여 5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에서는 '일상'에 초점을 맞춰 한국광복군의 군복과 예술 활동에 대해, 제2부에서는 '기억'에 초점을 맞춰 기념일 및 교과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기억의 양상과 한국광복군의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민(이화여대)은 그동안 부족한 자료로 인해 실체가 불분명하였던 한국광복군 군복의 변천사를 면밀히 고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중국의 왕메이 시안(西安)박물관 부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발표를 통하여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 조장으로 활약한 한유한(한형석)이 한국광복군 군가 등의 음악을 작곡하여 광복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한 점, 중국 아동음악계를 견인하여 그 후에 중국의 뛰어난 예술가로 성장한 이들을 다수 육성했다는 점을 한국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재욱(광시사범대학)은 그동안 국내 역사학자들이 한국광복



1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남경)  
2 한국의 분노(1946)  
3 부나이푸(1941, 충칭)  
4 이범석과 부나이푸(1943, 서안)

군 참모장 이범석의 자서전으로 이해해 온 『우등불』 9개 장 중 『청산리철혈실기』를 포함한 3장이 부나이푸 작품의 각색본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범석의 작품으로 인지해 온 『방랑의 정열』(1950), 『툰스크의 하늘 아래서』(1972)도 부나이푸의 『북극풍정화』, 『러시아의 사랑』이 원전이라는 점을 발표하였다.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중국 사회에 알리고자 한 이범석이 1940년대 전반 부나이푸를 만나 자신의 활동을 취재하게 하고 그 성과로 부나이푸가 문학작품을 저술하여 1940년대 전반 중국의 신문에 연재되고 단행본으로도 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부나이푸의 『청산리철혈실기』(靑山里喋血實記), (1942, 중국에서 중판 발간)는 해방 후

광창각에서 『한국의 분노:청산리혈전실기』(1946, 이범석 저)로 발간되는데, 이것은 해방정국에서 이범석이 일찌감치 자신의 정치적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지적하였다. 정호기(전남대)는 한국광복군에 관한 사회적 기억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의 선구자인 한시준(단국대)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이루어진 한국광복군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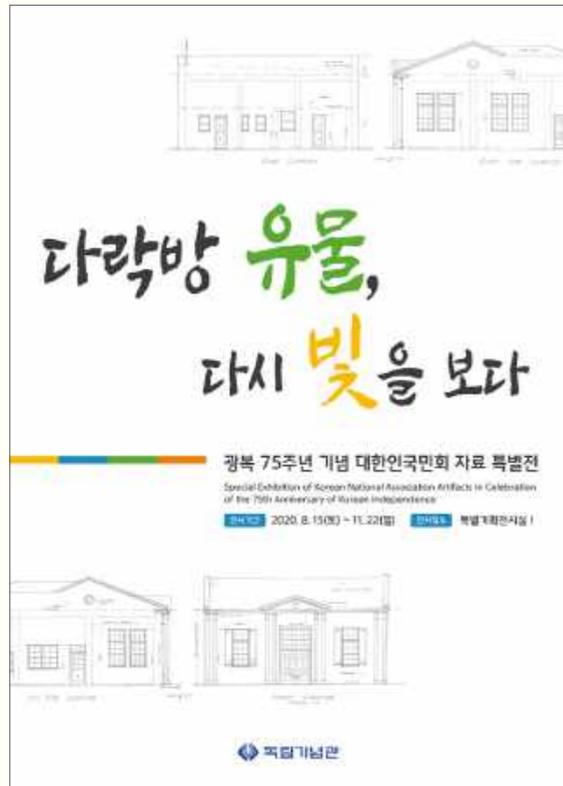
※ 문의: 학술연구부 최우석 연구원(041-560-0429)

03

#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발견 자료 특별전 개최 〈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

## 전시 개요

기간	2020. 8. 15.(토) ~ 11. 22.(일)
장소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 I (제7관 내)
내용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발견 자료를 통해 본 대한인국민회와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자료	대한인국민회헌장 등 81건



독립기념관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발견 자료 특별전 〈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를 전시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는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대신하여 이주 한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버팀목이자 이들을 하나로 모아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단체다. 1909년 미주 한인 단체를 통합하여 1909년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고 1910년부터는 '대한인국민회'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전시되는 자료는 200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을 복원공사 하던 중 다락방에서 발견된 약 1만여 점의 자료 중 일부로, 발견된 자료는 미주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독립기념관은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2019년 11월 대어 형식으로 자료를 이관하였고, 이관 자료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 자료 81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광복절을 맞아 특별 공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전시 자료로는 대한인국민회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이 담긴 『대한인국민회헌장』을 비롯하여 대한인국민회가 제작한 3·1 독립선언서, 대한인국민회 발견 태극기 등이 있다. 특히 올해 경술국치 110년,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 등을 맞이하여 멕시코 지역 한인들의 '국치일' 행사 보고 문건과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 사진 동판, 뉴욕 한인들의 한국광복군 후원 송금 안내문 등 시의성 높은 자료도 함께 전시된다.

독립기념관은 자료적 가치가 높은 대한인국민회 발견 자료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전시된 자료를 통해 나라 밖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대한인국민회와 그들과 함께 희생한 미주 한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헌장(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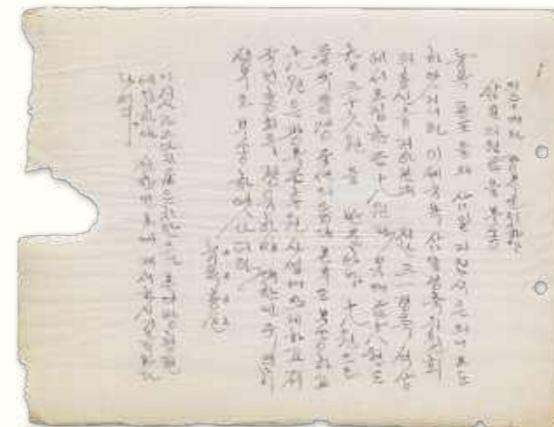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발견 태극기



총회관 낙성식 축하문(1938)



멕시코 메리다 지방회 '국치기념식' 개최 보고(1941)



뉴욕 지방회가 작성한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후원금 송금 안내문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 사진 동판

# 독립기념관 임시 휴관 안내

임시 휴관 기간 | 2020. 08. 25 ~ 잠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합니다.

※ 재개관 시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독립기념관에서는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현충시설 홍보에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성 영상을 공모하기 위해 "2020년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홍보 UCC공모전"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REC

## 2020년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홍보 UCC 공모전

### 일상 돋보기

월간 독립기념관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일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추억은 나눌수록 더 오래 기억됩니다.



#### 참여안내

주 제 | 자유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E-mail | sunny@i815.or.kr

주 소 | (312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월간『독립기념관』담당자 앞

### 월간 「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방법

전 화 | 041) 560-0244

E-mail | sunny@i815.or.kr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독립기념관 운영에 대한 홍보 및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역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텍스트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문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41) 560-0244

E-mail | sunny@i815.or.kr

### 월간 독립기념관, 이제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월간 독립기념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웹진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공모개요

**주 제** 34개 현충시설 홍보 UCC제작

**접수기간** 2020. 7. 27. ~ 9. 25. (15:00까지)

**응모자격**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 개인(단체) 2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단체참여의 경우 팀원수 제한 없음

**응모방법** 1)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2)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작품설명, 유튜브URL, 기재) 작성 후 E-mail 제출  
- 2개 작품 신청 시 각각의 참가신청서 작성

**규 격** -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모든 영상 콘텐츠 가능  
- 상영시간 : 90초 이내  
- 파일형식 : HD화질 (1280x720픽셀 이상), AVI 또는 mp4 동영상  
※입상작 선정 이후 원본 파일 및 재하중영서 제출

**접 수 처** edu@i815.or.kr

**발 표** 2020. 10. 8. (예정)

#### 시상계획 (독립기념관장상) / 34팀, 총 상금 2,250만원

대상 1명(팀)	금상 2명(팀)	은상 4명(팀)	동상 27명(팀)
200만원	15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상금은 팀 대표에게 지급되며, 주최기관은 상금배분 문제에 관여하지 않음  
상장은 개인별로 수여함  
※소득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 공제 후 상금 지급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타사항

- 입상작은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홍보용으로 활용됩니다.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당선 후 순수 창작물이 아닐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상금이 취소됩니다.
- 응모작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 소유권, 명예훼손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음악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로운 음원을 사용하여 합니다.
- 개인(단체) 2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복수 작품이 입상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장작을 공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품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저작권법 10조), 상금을 수령한 입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우리관에 귀속됩니다.
- 접수된 사항은 수정 및 취소 불가하며, 접수된 출품작(서류)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서류(참가신청서를) 모두 폐기합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문의 독립기념관 교육부(041-560-0269 / edu@i815.or.kr)

독립기념관

# 이달의

## 주요 행사

2020. 09



### 전시

독립전쟁 100주년 특별기획전  
〈나는 독립군입니다〉

대한민국민회 자료 특별전  
〈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

야외 사진전  
〈19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 학술

제2차 교양강좌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 교육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홍보  
UCC공모전

제33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 홍보

독립기념관 여름과 가을  
사진공모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홍보 UCC 공모전(~9/25)</li> <li>· 독립전쟁 100주년 특별기획전 &lt;나는 독립군입니다&gt;(~10/25)</li> <li>· 제33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10/30)</li> <li>· 독립기념관 여름과 가을 사진공모전(~11/15)</li> <li>· 대한민국민회 자료 특별전 &lt;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gt;(~11/22)</li> <li>· 야외 사진전 &lt;19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gt;(~12/31)</li> </ul>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체험 프로그램 '청소년학교'(~9/24)</li> <li>· 제2차 교양강좌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대전시립박물관 화상강의)</li> </ul>	4	5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	강우규 의거(1919)				
6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교양강좌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대전시립박물관 화상강의)</li> </ul>	11	12	김약상 의거(1921)
13	14	1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내 손안의 독도 9차 교육 (~9/17, 선착순 300명)</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교양강좌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대전시립박물관 화상강의)</li> </ul>	18	19	
	박재혁 의거(1920)		105인 사건(1911)	한국광복군 창설(1940)	일제의 만주 침략(1931)		
20	21	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내 손안의 독도 9차 교육 (~9/14, 선착순 300명)</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교양강좌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대전시립박물관 화상강의)</li> </ul>	2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토요일사체험 (선착순 100명)</li> </ul>	
27	28	29	30				
			추석 연휴				